

文獻에 나타난 肺風粉刺에 대한 考察

김미선·윤창열*

關於肺風粉刺的文獻考察

金美仙·尹暢烈*

大田大學校 韓醫學科 原典學專攻

以古今文獻爲中心, 對肺風粉刺進行研究, 得出如下結果:

在『黃帝內經』的『素問·生氣通天論』和『素問·氣交變大論』中, 首次言及虛勞與熱爲主的病因說. 言及以熱和風熱, 風熱與濕相搏爲主的病因說的著作是『千金方』, 『證治要訣』, 『證治準繩』, 『外科正宗』, 『諸病源候論』, 『洞天奧旨』等. 『證治準繩』更詳細地言及其病因, 即認爲該病是飲食或金石劑等太過, 積熱聚於陽明經而發病. 對顏面部的發病, 古今醫統及諸多文獻都認爲與陽明胃經有關, 而且還與脾肺有關. 『外科正宗』指出風熱閉塞毛竅是其病理所在, 認爲肺風, 粉刺, 酒瘡鼻的病理相同, 但成爲發生原因的臟腑, 以脾, 肺爲主而各異. 陳士鐸在『洞天奧旨』中指出因肺熱與風導致氣血不和而發病, 且指出此病是青春男女都很厭倦的疾患. 『聖濟總錄』認爲該病是趁精氣虛之機, 邪氣侵入而發生. 而『醫學入門』認爲腎陰不足是發生該病的病機所在. 『萬病回春』指出其病因是上焦火, 肺熱, 陽明經鬱熱, 提出治法是清上降火.

Key words : 肺風粉刺, 風熱與濕相搏, 陽明積熱, 面部發病.

I. 緒論

思春기에 발생하는 일종의 毛囊皮脂腺의 慢性炎症性 질환으로 顔面, 胸, 背 등에 面疱, 丘疹, 膿疱, 囊腫 및 結節 形成을 특징으로 하는 여드름은 한의학에서는 粉刺, 面疱, 面粉渣, 酒刺, 粉花瘡, 粉疵, 皰瘡, 嗣面, 面疔瘡, 面生皰瘡, 皰瘡, 谷嘴瘡, 面皰, 肺瘡瘡, 皰刺, 暗瘡, 壯疙瘡, 青春粒, 瘡瘡, 肺風 粉刺 등으로 표현된 질환의 증상들과 일부 일치한다.

肺風粉刺등의 일부 증상의 특징과 형태 등은 우리가 흔히 여드름이라 부르는 西洋 의학적으로 尋常性 여드름(Acne vulgaris)과 유사한 점이 많다.

성숙기에 이르러 皮脂腺의 활동이 강화되면서 皮脂가 많이 분비되고 表皮의 角化이상으로 毛囊口가 막히게 되면 皮脂가 배출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黑頭라 불리는 面疱가 발생한다. 또한 면포 주위의 경미한 炎症 반응으로 인한 丘疹, 2차 감염에 의한 膿疱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囊腫 및 結節을 일으켜 치유된 후 癍痕을 남기기도 한다. 발생부위는 주로 皮膚의 脂漏性 부위인 顔面, 頸部, 가슴, 등에 잘 생기며 피로하거나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을 때 무더운 여름철, 월경 전, 변비 등이 있을 때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여드름을 청춘의 심벌이라 하기도 하나 外貌에 관심이 집중되는 청소년기에 빈발하여 외모에 대한 자신감 결여로 인한 정신적 압박 또한 크고, 여드름이 자연 완해 되거나, 치료 후에도 癍痕이 남는 등으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도 고민하는 경우가

*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 교신저자 : 윤창열 · E-mail : yooncy@dju.ac.kr
· 채택일 : 2006년 12월 1일

많다. 이에 한의학에서는 현대의 여드름과 특징과 형태 등에서 일부 일치되는 점이 있는 肺風粉刺의名稱, 定義와 病因과 症狀 治法을 어떤 관점으로 보았는지 연구하고 고찰하여 치료에 도움을 얻기 위해 살펴보았다.

II. 文獻의 內容 研究와 考察

1. 『東醫寶鑑』내용 연구

【面病專屬胃】

○ 手足六陽之經 雖皆上至頭 而足陽明胃之脉 起於鼻 交頰中 入齒 挾口 環脣 倚頰車 上耳前 過客主人(穴名) 維絡于面上 故面病專屬於胃 其或風熱乘之 則令人面腫 或面鼻色紫 或風刺 癩疹 或面熱 或面寒 隨其經證而治之 『醫鑑』

【考察】

이 條文에서는 주로 足陽明胃經의 經脈이 얼굴을 이리저리 엮으므로 얼굴병은 胃에 속한다하여 治療 臟腑가 주로 胃이고 그 病因이 風熱임을 나타내고 있다.

【面上雜病】

- 風刺 粉刺黥黯 瘡癩 酒瘡 肺風瘡 (瘡瘡詳見鼻門) 皆面上之病 『入門』
- 風客皮膚 痰漬藏府 則面生黥黯 脾 肺風濕搏熱則生瘡 紅紫或腫 升麻胃風湯 (方見上) 加減用之 『入門』
- 面生熱毒 瘡癩 瘡癩宜栢連散 硫黃膏 白附子散 清上防風湯
- 面生一切風刺 粉刺 雀卵斑 黥黯 鬚子 宜玉容散 連翹散 紅玉散 玉容西施散 黃帝塗容金面方 玉容膏
- 滅面上癩痕方 衣中白魚三 七枚 白石脂三錢半 鷹糞白七錢半 白附子二錢半 白僵蠶五錢 右爲末 猪脂調和 每夜塗癩上 朝洗之 『類聚』

【考察】

『入門』이나 『醫方類聚』 등에서도 病因을 주로 風濕과 熱로 보았으며, 治法으로는 주로 清上과 發散을 위주로 陽明經을 다스리는 약제를 주로 썼음을

알 수 있다.

【栢連散】

○ 治面上熱毒 惡瘡 黃栢灸 黃連 胡粉炒各等分 右爲細末 猪脂調勻 類塗瘡上 『得效』

【硫黃膏】

○ 治面上生瘡 或鼻臉赤紫 及風刺 粉刺 諸藥不效 生硫黃 白芷 瓜蒌根 膩粉各半錢 全蝎三箇 蟬殼五枚 莞青七枚去翅足 右爲末 另以香油 黃蠟 和合如面油法 火上熔熬取下 乃入藥末在內 和勻 每用少許 臨臥洗面後 塗面上 勿近眼 數日 赤自消 風刺 粉刺 一夕見效 『得效』

【白附子散】

○ 治面上熱瘡 或斑點 白附子 密佗僧 白茯苓 白芷 官粉各等分 右爲末 蘿菔煎湯洗面後 羊乳調成膏 附患處 明早洗去 無羊乳則代人乳 『醫鑑』

【清上防風湯】

○ 清上焦火 治頭面生瘡 癩風熱毒 防風一錢 連翹 白芷 桔梗 各八分 酒炒片芩 川芎 各七分 荊芥 梔子 黃連 酒炒枳殼 薄荷 各五分 甘草三分 右剉作一貼 水煎 入竹瀝五匙服 『醫鑑』

【玉容散】

○ 治面上黥黯 或生小瘡 或生瘡癩 粉刺之類 并皮膚瘙癢 能去垢膩 皂角一斤 升麻二兩六錢半 楮實子一兩六錢半 白芷 白芨 天花粉 菉豆粉 各三錢三分半 甘松 縮砂 白丁香 各一錢六分半 糯米三合半 右爲末 和勻 常用洗面 一方加樟腦二錢 『醫鑑』

【連翹散】

○ 治面生穀嘴瘡 俗名粉刺 連翹 川芎 白芷 片芩 黃連 沙參 荊芥 桑白皮 梔子 貝母 甘草各七分 右剉 作一貼 水煎 食後服

○ 一名清肺散 『回春』

【紅玉散】

○ 治面上一切酒刺 風刺 黑鬚斑子 白芷 藿香 牙皂各二錢 甘松 三乃子 木澤 白丁香 細辛 杏仁 密佗僧各一錢 天花粉 白茯苓各一錢半 樟腦五分 白芨三分 右爲末 臨臥用津唾 調或乳汁 調敷面上 明早溫水洗去 其面如玉 (木澤末

詳)『醫鑑』

[玉容西施散]

- 治同上 菘豆粉二兩 白芷 白芨 白斂 白殭蠶 白附子 天花粉各一兩 甘松 三乃子 茅香各五錢 零陵香 防風 藁本各二錢 肥皂角二錠 右爲細末 每洗面時用之 面色如玉『醫林』

[黃帝塗容金面方]

- 朱砂二錢 乾胭脂一錢 官粉三錢 烏梅肉五箇 小腦五錢 川芎少許 右爲細末 臨睡時 津唾調搽 面上 天明溫水洗面 美如童顏 乃神仙妙用之法『醫鑑』

[玉容膏]

- 治面上燥瘡及斑點諸刺 (方見雜方)
- [又方] 治粉刺 枯白礬一兩 生硫黃 白附子各二錢 右爲末 津唾調搽 臨臥上藥 明早洗去『醫鑑』
- 治粉刺及鼻瘡 雄黃 鈆粉各一錢 硫黃五分 右爲末 臨臥乳汁調塗 明早溫水洗去『回春』

【按摩法】

- 熱摩手心 頻拭額上 謂之修天庭 連髮際二三七遍 面上自然光澤 所謂手宜在面是也『養性書』
- 單方

【鹽湯】

- 治面上五色瘡 溫鹽湯 綿浸 搦瘡日五六度 自差『本草』

【白礬】

- 治粉刺 白礬末 酒調塗之『得效』
- 面生紫赤刺 癩疹 白礬 硫黃等分 黃丹少許 爲末 津唾調附『入門』

【石灰】

- 去面上黑子 瘰肉及粉刺
- 去鬚子方 石灰末 水調如稠粥 插糯米粒 經宿米 如水精 先以針尖 微動鬚子 置糯米於其上 經半日 鬚汁自出 剔去藥 勿着水『本草』

【兔絲子苗】

- 去面黥及粉刺 斑點 搗苗取汁 常塗之『本草』

【益母草】

- 入面藥 令光澤 五月五日採根葉 曝乾搗末 水和作團 如鷄子大 大火燒一炊久 經一伏時取出 磁器中再研 篩 收之 使如澡豆法 能去風粉刺 令面悅澤『本草』

【藁本】

- 去黥皤 酒瘡 粉刺 潤澤顏色 可作沐藥 面脂『本草』

『東醫寶鑑·外形篇·皮門』

【瘡瘰癧】

- 內經曰 勞汗當風寒 薄爲瘡 鬱乃瘰 此勞汗出於玄府 脂液所凝 防風通聖散 去芒硝 倍加芍藥 當歸 發散玄府之風 調其榮衛 俗云風刺『綱目』
- 內經曰 汗出見濕 乃生瘰癧 瘰者小瘰也 大如酸棗 或如豆 色赤而內有膿血也『綱目』
- 暑月汗漬 肌生紅粟 謂之瘰子 爛破成瘡 謂之瘰瘡 宜用玉女英『奇效』
- 瘰癧瘡 青蒿煎湯洗之『入門』
- 瘰子痒痛 井水按青蒿汁 調蛤粉付之『得效』
- 臘雪水 洗瘰瘡妙 和蚌粉付之 尤妙『入門』

【考察】

內經에 일한 후에 땀을 흘리고 땀이 땀구멍에 머무르고 이곳에서 기름과 응결하여 風刺가 생긴다고 하였다. 이는 인체의 허한 틈을 타서 땀구멍에 風寒邪가 들어 온 것을 말하는 것으로 風을 發散시키고, 榮衛를 調和해야 한다는 치법을 제시하고 있다.

『東醫寶鑑·雜病篇·虛勞門』

【腎虛藥】

- 腎藏有二 左爲腎 右爲命門 腎屬水 水不足則爲陰虛 命門屬火 火不足則爲陽虛
- 腎虛 宜用六味地黃元 太極丸 陰煉秋石丹 八味補腎丸 冷補丸 腎氣丸 三一腎氣丸 延年益壽不老丹(方見身形) 無比山藥元 補腎養脾丸
- 命門虛 宜用八味丸 加減八味丸(二方並見五藏) 小菟絲子元 三味安腎丸 九味安腎丸 小安腎丸 加減內固丸(方見前陰) 陽煉秋石丹 秋石五精丸 增益歸茸元
- 腎與命門俱虛 宜用玄菟固本丸 斑龍丹 陰陽煉秋石丹 茸珠丸

【六味地黃元】

- 治虛勞 腎氣衰弱 久新憔悴 寢汗發熱 五藏齊損 瘦弱虛煩 骨蒸痿弱 脉沈而虛(方見五藏)

- 此藥專補左尺腎水 兼理脾胃 少年水虧火旺 陰虛之證 最宜服之
- 凡人年幼被誘 慾太早者 根本受傷 及稟賦薄者 又鬪喪之過 隱諱不敢實告 以致元氣虛憊 或遺精 盜汗 神疲 力怯 飲食不生肌肉 面白 五心發熱 夏先惡熱 冬先怕寒 腰疼 膝重 頭暈 目眩 故曰 水一虧則火必勝 火動則肺金受剋 而痰嗽作矣 或勞汗當風 面生粉刺 則虛損成矣 宜服此藥 可保無虞 『回春』

【考察】

腎虛인 경우(水가 부족하여 陰虛인 경우)는 인체의 元氣가 虧損 된 경우이다. 몸이 허한 틈을 타서 땀 흘려 일한 후에 풍사가 침입하여 얼굴에粉刺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내용이다. 얼굴에 분자가 생기는 病因을 腎虛(陰虛)로 본 것이 새롭고 治法으로 補陰法을 제시하였다.

『東醫寶鑑·雜病篇·諸瘡門』

【軟癩】

- 瘰癧小癩也 世謂之熱癩 大如酸棗或如豆 色赤而內有膿血也 『綱目』
- 宜用猪頭散 三物散 大黃膏

【考察】

瘰癧小癩이라 하여 크기와 形態, 性狀을 나타낸 구절이다.

2. 『黃帝內經』의 내용 연구

[生氣通天論]

- 陽氣者, 煩勞則張, 精絕辟積, 於夏使人煎厥. 目盲不可以視, 耳閉不可以聽, 潰乎若壞都, 汨汨乎不可止. 陽氣者, 大怒則形氣絕而血菀於上, 使人薄厥. 有傷於筋, 縱其若不容, 汗出偏沮, 使人偏枯, 汗出見濕, 乃生瘰癧. 高粱之變, 足生大丁, 受如持虛. 勞汗當風, 寒薄爲皴, 鬱乃瘰.
- 註 夫皴(여드름사)與瘰癧, 乃血滯於膚表之輕證, 蓋言陽氣外衛於皮膚之間, 爲邪所薄, 則淡滲於皮毛之血而爲病矣. 故曰汗出偏沮, 使人偏枯者, 言陽氣之若天與日, 宜普徧於九州也. 乃

生瘰癧, 寒薄爲皴者, 言陽氣之外衛而在於皮毛之間也. 膏粱之變, 足生大疔者, 言陽氣之通會於腠理也. 王冰注曰: 皴刺長于皮中 形如米 或如針 久者上黑長一分 余色白黃而瘦于玄府中 俗曰 粉刺

註釋: 대저 皴와 瘰癧는 혈이 피부표면에 滯한 輕症이다. 대개 陽氣는 외부에서 피부사이를 보호하는데 사기가 상박하면 皮毛의 血이 스며 나와 病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땀이 한편에서만 나고 사람이 반신불수가 된다고 한 것이다. 陽氣는九州에 普遍화된 하늘과 태양을 말한다. 이에 瘰癧가 생하고 寒邪가 상박하여 皴가 된다고 한 것은 陽氣가 외부에서 지켜 皮毛之間에 있다는 것이다. 膏粱之味가 변하여 발에 丁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陽氣가 腠理에 통하여 모여 있는 것이다. 王冰註曰 皴刺 가운데 皮膚 중에 있어 쌀과 같고 흑 침과 같아 오래된 것은 위에 검은 것이 길이가 일 뿐이 되고 색이 白黃이며 玄府중에 가는 것을 속칭 粉刺라 하는 것이다.

[氣交變大論]

- 歲木不及, 燥乃大行, 生氣失應, 草木晚榮, 肅殺而甚, 則剛木辟著, 柔萎蒼乾, 上應太白星. 民病中清, 脘脇痛, 少腹痛, 腸鳴漉泄, 涼雨時至, 上應太白星, 其穀蒼. 上臨陽明, 生氣失政, 草木再榮, 化氣乃急, 上應太白鎮星, 其主蒼早. 復則炎暑流火, 註 皆暑熱爲病也. 濕性燥, 柔脆草木焦槁, 下體再生, 華實齊化, 病寒熱瘡瘍, 癰疹癰瘰, 上應熒惑太白, 其穀白堅. 白露早降, 收殺氣行, 寒雨露物, 蟲食甘黃, 脾土受邪, 赤氣後化, 心氣晚治, 上勝肺金, 白氣屈, 其穀不成, 效而黜, 上應熒惑太白星.

【考察】

歲木이 不及하면 金氣가 유행하고, 金氣는 陽明의 氣이며 건조함을 주한다. 陽明의 氣는 肅殺의 기로서 사물을 건조시키고 衰落하게 한다. 금기가 유행하면 火氣가 金氣를 제압하려고 하여 火가 盛하게 되고, 이에 寒熱瘡瘍, 癰, 疹, 癰瘰 등의 병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병들은 火와 金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唐·孫思邈의 『千金方』 내용 연구

[熱瘡癩子]

- 凡熱瘡起，便生白膿，卽今俗名膿窠瘡是也。其初起卽淺，但出黃汁，名肥瘡，又名黃爛瘡。初作亦如肥瘡，喜著手足，常相對生，隨月生死，痛癢坼裂，春夏秋冬，隨癢劇者，名癩瘡。

【考察】

대부분 피부에 생하는 구진, 종기 등의 병인을 열로 보았으며, 병명에 상관없이 여기에서 논하는 肥瘡, 또는 黃爛瘡은 여드름의 囊腫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4. 明·戴思恭의 『證治要訣』의 내용 연구

[癩子]

- 癩，素問謂之癩瘡，香撲粉入朴硝末，如常撲使，更入少許枯白礬末

[面風]

- 兩頰赤腫，其狀如癩，名頭面風。酒調消風散，食後服，仍以杏仁去殼搗之。

【考察】

병인을 풍과 열로 보았으며 치법은 역시 소풍청열법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5. 明·李梴의 『醫學入門』의 내용 연구

[癩瘡]

- 夏暑心神鬱燥，熱逼汗漬，成瘡偏身，或出膿血，赤爛如火，用南星·半夏·黃連·黃蘗各一錢，五倍子·黃丹各五分爲末，乾搽。如癢加枯礬，雄黃，常服黃連阿膠丸以清火。
- 熱汗浸漬成瘡，癢痛不止，用黃芪·當歸·防風·荊芥穗·地骨皮·木通各二錢，白礬一兩爲末，每藥一兩，水三大碗，煎五六沸，濾去滓，稍熱，淋洗患處，拭乾避風，少時立效；輕者只用臘雪水和蛤粉敷之。
- 癩瘡瘡，因汗出多濕而生，輕者狀如撒粟，用青蒿煎湯洗之，或棗葉亦好。重者熱汗浸漬，匝匝成瘡，用棗豆，滑石末各五錢，綿蘸撲之，磨破成瘡，加黃蘗，棗葉各五錢，片腦少許。

【考察】

瘡癩瘡 등은 열과 습에 의해 발생하며, 치법으로는 청화조습의 방법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6. 明·王肯堂의 『證治準繩』의 내용 연구

[瘡]

- 瘡卽小癩，世謂之熱癩是也。王註云：大如酸棗，或如豆，色赤而內有膿血也。
- 海藏云：汗出見濕，乃生瘡癩，爲瘡癩也。
- 瘡色赤膿，內有膿血。

[面遊風]

- 或問：面遊風毒何如？曰：此積熱在內，或多食辛辣厚味，或服金石剛劑太過，以致熱壅上焦，氣血沸騰而作，屬陽明經。初覺微痒如蟲蟻行，搔損則成瘡，痛楚難禁，宜服黃連消毒散去人參加薄荷，梔子及活命飲加桔梗·升麻·紫金丹·烏金散，選用。外用祛風潤肌之劑敷之

【考察】

증치준승의 내용은 [내경]의 내용에 병인을 좀더 상세하게 밝혀 내인과 음식으로 인한 내습과 내열의 축적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치법은 청열, 발산, 해독 등을 사용하였다.

7. 明·陳實功의 『外科正宗』의 내용 연구

- 瘡癩者，密如撒粟，尖如芒刺，癢痛非常，渾身草刺，此因熱體見風，毛竅所閉，宜服消風散，洗用苦參湯，甚者皮損，匝匝成瘡，以鵝黃散輕絹帛蘸藥撲之。

[肺風粉刺酒齶鼻]

- 肺風·粉刺·酒齶鼻三名同種。粉刺屬肺，齶鼻屬脾，總皆血熱鬱滯不散，所謂有諸內形諸外。宜眞君妙貼散加白附子敷之；內服枇杷葉丸·黃芩清肺飲。

【考察】

좀더 진보된 인식을 볼 수 있다. 熱과 風으로 인하여 毛竅가 閉塞되어 발생한다는 것은 현대의 病因과 정확히 일치한다. 또한 오장육부의 이상이 겉에 표현된 것으로 보았으며 역시 치법으로는 消風清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8. 清·陳士鐸의 『石室秘錄』의 내용 연구

[皮毛治法]

- 癩瘡, 以暑氣傷熱而生也, 有雪水洗之更佳, 隨洗隨滅. 如不能得, 有一方最妙, 用黃瓜切成片擦之即愈, 此從皮毛治之法也.

『洞天奧旨』(일명 外科秘錄)

[粉刺]

- 粉刺之證, 乃肺熱而風吹之, 要亦氣血不和, 多成此疵. 雖無關大病, 然書生嬌女, 若生此病, 亦欠豐致. 我有一方爲之添容, 方用輕粉·黃芩·白芷·白附子·防風各一錢, 各爲細末, 蜜調爲丸, 於每日洗面之時, 多擦數遍; 臨睡之時, 又重洗面而擦之, 不須三日自然消痕滅癩矣.

[面瘡]

- 明治法者, 明示人之病證而不必暗治之也. 如生瘡毒於面頰間是也. 有瘡, 俱照瘡毒之法消之, 但不可如發背肺癰重證而治之也. 今有治小瘡毒神方, 金銀花, 當歸, 蒲公英各一兩, 生甘草三錢, 荊芥, 連翹各一錢, 水煎服, 一劑輕, 二劑消, 三劑愈. 此明治之妙法也. 然頭面上切不可用升藥, 蓋下病宜升而上病不宜升, 宜用降火之藥.

【考察】

분자가 대병은 아니며 미용상의 병임을 밝혔으나 오장육부가 관계된 병임을 밝혔고, 면창의 창독을 없애는 방법으로 등과 폐에 생긴 중증을 치료하지 말라는 병의 경중에 따라 치료법이 다름을 밝혔다.

9. 金·李東垣의 『蘭室秘藏·自汗門』의 내용 연구

[洗面藥]

- 治面有黧黯 或生瘡 或生痤癩 及粉刺之類 并去皮膚燥癢 去垢膩 潤澤肌膚 皂角三斤去皮 苧子別搗 好升麻 楮實子五兩 白芨一兩細剉 甘松七錢 縮砂連皮 白丁香臘月收 三柰子已上各五分 菘豆八合揀淨另搗 糯米一升二合 右爲細末 用之如常

10. 元·王好古의 『醫壘元戎』의 내용 연구

旋覆代赫石例 (仲景 旋覆代赫石湯)

壞證

- 右傷寒吐下後 發汗 虛煩 脈甚微 八九日 心下痞鞭 肋下痛 氣衝咽喉 眩冒 經脈動惕者 久而成痿 或傷寒 發汗若吐若下解後 心下痞鞭 噫氣不除者

旋覆花(三字) 人蔘(半錢) 半夏(半錢) 生薑(一錢一字) 代赫石(一字) 甘草(三字) 大棗(一枚) (凡言一字力一分半補正) 右咬咀 每服五錢匕 水一盞半煎 至八分 溫服

[旋覆華湯]

- 治風熱 面生赤癩 鼻頭赤 面紫黑者 當刺出血 人蔘 生薑 甘草 茯苓 旋覆花(去枝萼) 黃芩 芍藥 柴胡 枳實(麩炒) 九味各一錢 右麩末 以水四盞 慢火煎 至二盞半 去滓 分三服 溫飲 又葛根升麻湯 加黃芩枳殼 仲景 治婦人 有三物旋覆華湯 胡洽 治痰飲在兩脇間 脹滿等證 旋覆華丸

[酒醯]

- 日華子云 山茱萸 暖腰膝 助水藏 除一切風 逐一切氣 破癥 治酒醯 汗出見濕 乃生痤癩 癩爲瘡癧也 勞汗當風 薄爲皴 鬱乃痊 痊色赤 膜內有膿血

11. 明·龔廷賢의 『萬病回春』의 내용 연구

[面病]

面生瘡者 上焦火也

[清上防風湯]

- 清上焦火 治頭面 生瘡癩風熱之毒 防風一錢 荊芥五分 連翹八分 梔子五分 黃連五分 黃芩酒炒七分 薄荷五分 川芎七分 白芷八分 桔梗八分 枳殼二分 甘草二分 右剉一劑 水煎食後服 入竹瀝一小鐘尤效 面紫黑者 陽明病也

[升麻白芷湯]

- 治面唇紫黑 乃陽明經不足也 乘馬 白芷 各二錢 防風 二錢 芍藥 蒼朮各三分 黃芪 人蔘各七分 葛根一錢半 甘草四分 右剉一劑 薑棗煎服 宜早後午前 取天氣上升于中 使陽達于面也

面生粉刺者 肺火也

[清肺散]

- 治面上生穀嘴瘡 俗名粉刺 連翹 川芎 白芷 黃連 苦蔘 荊芥 桑白皮 黃芩 山梔 貝母 甘草 各等分 右剉一劑 水煎臨臥服
面熱者 陽明經風熱也

[升麻黃連湯]

- 治面熱 升麻 葛根 各一錢半 白芍 七分 川芎 四分 薄荷 荊芥 各二分 蒼朮 八分半 黃連酒洗五分 黃芩六分 犀角四分半 白芷二分 甘草五分 右剉一劑 水煎食後服

【考察】

얼굴병을 상초화 특히 양명경풍열이나 폐화로 보아서 치법을 消風清熱宣肺로 하였다.

12. 明·徐春甫의 『古今醫統』의 내용 연구

[面病專屬胃]

- 手足六陽之經，雖皆上至頭，而足陽明胃之脈，起於鼻交頰中，入齒挾口環脣，循頰車，上耳前，過客主人，維絡於面上，故面病專屬於胃。其或風熱乘之，則令人面腫，或面鼻色紫，或風刺癢疹，或面熱·或面寒，隨其經證而治之。
- 若面脣紫黑，宜升麻白芷湯。

[面上雜病]

- 凡風刺·粉刺·黥黯·瘰癧·酒皸·肺風諸瘡，皆屬面上之病。
- 風客皮膚，痰漬臟腑則面生黥黯，脾肺風濕搏熱則生瘡，紅紫或腫，升麻胃風湯加減用之。

13. 隋·巢元方的 『諸病源候論』

- 面皰侯 面皰者 謂面上有風熱氣生瘡，頭如米大，白色者是

14. 明·申斗垣의 『外科啓玄』

- 婦女面生窠瘻作痒 名曰粉花瘡 乃肺受風熱或絞面感風 致生粉刺 蓋受濕熱也 肺氣不清受風而生 或冷水洗面熱血凝結而成

15. 清·吳謙의 『醫宗金鑑』

[外科心法要訣]

- 肺風粉刺 此證由肺經血熱而成 每發于面鼻 起碎疙瘡 形如黍屑 色赤腫痛 破出白粉汁 日久皆成白屑 形如黍米白屑 宜內服枇杷清肺飲 外敷顛倒散

16. 晋·葛洪의 『肘後秘急方』:

- 年少氣充 面生皰瘡

17. 宋代의 『聖濟總錄』

- 因虛而作，邪氣入虛

18. 醫案의 내용 연구

- 『儒門事親』曰：一省掾 背項常有瘰癧，愈而復生。戴人曰：太陽血有餘也。先令涌泄之，次於委中以 銚針出紫血，病更不復作也。
- 『寓意草』曰：黃鴻軒手臂忽生癰癩，漫腫無頭，痛極莫耐，外科醫者 咸謂熱毒所致。揆之平素，淡泊明志，寧靜居心，絕無生熱致毒之因，究莫識其所起也。尊公我兼謂昌善議病，盍舍樽俎而一代瘡人乎？昌曰：吾議此證，請先爲致賀，後乃言之。瘡瘍之起，莫不有因。外因者，天行不正之時毒也，起居傳染之穢毒也；內因者，醇酒厚味之熱毒也，鬱怒橫決之火毒也。治火毒與治諸毒，原自天淵，蓋火與元氣勢不兩立，以寒涼折之，則元氣轉濟矣。鴻軒於此總無其因，不問知爲胎毒之餘也。凡人稟受天地之氣，有清濁之不同，惟純粹以精之體，其福澤壽算，俱不可限量。然從父母構精而有身，未免夾雜慾火於形骸，所賴者 惟在痘瘡一舉，暗將所藏慾火，渾出軀外，復其粹精之恒體，如鑛金相似，必經爐火鍛鍊，而渣滓與精瑩始分之爲兩。吾嘗以此法觀出痘者之 眸子，七八日後閉眼之時，黑白分明者精金也，赤筋紅膜包裹者混金也。至於瞳人模糊，神光不現，則全非金矣。鴻軒幼時出痘太多，元氣不能充灌，又爲雜證所妨，臟腑中之火毒雖盡，而軀殼之留滯猶存，所以痘癰之發，必於手足之委中，曲池者，則以零星小毒無處可容，而潛避於呼吸難到之處耳。今之癰疽，正當

委中之穴，其爲痘毒何疑？毒伏肘腋之下，原無所害，但粹精之體，微有夾雜，是亦寶鑑之微塵，白璧之微瑕也。日者太和元氣，充滿周身，將十五年前之餘滓，盡欲化爲膿血而出，他人見之爲毒，吾已卜其爲興者機矣。豈有暢於四肢，而不發於事業者哉？治法外用馬齒莧熬膏攻之速破，內用保元湯托之盡出，仍以痘門藥爲治，卽日自當痊愈，必不似瘡毒之曠日持久。但不識證，而以治瘡毒寒涼瀉火諸藥投之，適以增楚貽患耳。孰謂外科小恙，可無樽俎衛之人耶？如法治之，潰出膿水甚多，果不用生肌長肉而自愈。

【考察】

창의 원인을 내외인으로 분류하고, 내외인이 아닐 경우 선천적인 요인과 과거 어린 시절 태독의 불완전한 치료로 체내에 잠복해 있는 小毒을 병인으로 밝혔다.

19. 여러 處方에 대한 연구

[方]

1) 旋覆花丸

- 旋覆花三兩 防風 白芷 甘菊花 南星 半夏 石膏 川芎 陳皮 白附子各半兩 蠟梢 蠶蠶炒, 各三錢
- 右爲細末, 薑汁糊丸梧桐子大, 薑湯下三五丸, 食後服.

2) 白蒺藜散

- ◎ 治熱毒瘡癢, 心神壅躁.
- 白蒺藜炒去刺 白蘚皮 防風 大黃剉炒 赤芍藥 梔子仁 子芩 麥門冬去心焙 元參 桔梗 甘草炙 赤剉 前胡去蘆, 各一兩
- 右爲細末, 每服二錢, 食後用薄荷湯調服.

3) 七寶散

- ◎ 治熱汗浸漬成瘡, 癢痛不止.
- 白礬一兩 黃芪 當歸 防風 荊芥穗 地骨皮 木通 各二兩
- 右爲粗末, 每用藥一兩, 水三大碗, 煎六七沸, 濾去滓, 稍熱, 淋灑患處, 避風少時.

4) 消風散

- ◎ 治風濕浸淫血脈, 致生瘡疥, 癢癢不絕; 及大人小兒風熱癩疹, 徧身雲片斑點, 乍有乍無, 并效.

- 當歸 生地 防風 蟬蛻 知母 牛蒡子 胡麻 荊芥 蒼朮 苦參 石膏各一錢 甘草 木通各五分
- 水二鐘, 煎八分, 食遠服.

【考察】

여러 처방들의 주치는 열과 땀(습)으로 인한 瘡癩瘡이며, 方意는 주로 清熱消風潤肌燥濕임을 알 수 있다.

20. 여러 가지 單方에 대한 연구

- 1) 癩瘡癢痛: 龍腦一錢研, 粟米粉五兩研勻, 先用棗葉湯洗, 後用綿搵撲之.
- 2) 治瘡癢痛, 名玉女英: 滑石半兩細研, 菉豆粉四兩微炒研勻, 以綿搵撲之. 一方有棗葉一兩.
- 3) 棟花粉: 敷癩子癢癢, 用苦棟花, 不拘多少, 焙乾爲末, 入蚌粉, 滑石末各少許, 研勻, 日頻敷之.
- 4) 暑月汗漬, 腋下赤膿及癩瘡: 取臘雪水和蛤粉敷之. 癩子用香撲粉入朴硝末, 如常撲使; 更入少許枯礬末.
- 5) 熱癩瘡, 徧身如蠶子: 用不灰木, 棗葉爲末, 瘡上搽之卽止.
 - 又方: 用慈姑葉陰乾, 爲末敷之.
 - 又方: 用臘雪以瓶收貯, 遇生癩時, 以所化水塗敷.
 - 又方: 用黃瓜切斷, 擦癩子上, 卽安.
 - 又方: 用棗葉煎湯浴之.
 - 又方: 用蚌粉四兩, 菉豆粉二兩, 滑石一兩爲末, 乾擦之.
 - 冬霜和蚌粉, 敷暑月癩瘡, 及腋下赤腫, 立瘥. 凡收霜以雞羽掃之瓶中, 密封陰處, 久亦不壞.
 - 癩子搔癢: 取東壁乾土末敷之, 隨手愈. 『普濟方』
 - 瘡癩癢癢: 井泉石生三兩, 寒水石煨四兩, 腦子半錢, 爲末撲之. 『總錄』
 - 腦上癩癩: 石灰入飯內搗爛合之. 『李樓奇方』
 - 夏月癩瘡: 石灰煨, 甘草各一兩, 蛤粉二兩, 研撲之. 『集元方』
 - 軟癩不愈: 爛般底油石灰研末, 油調敷之. 胡氏方
 - 一切瘡癩: 土朱瀟丹, 牛皮膠等分爲末, 好酒一碗衝之, 澄清服; 以渣敷之, 乾再上. 『集驗方』
 - 熱癩搔癢: 升麻煎湯飲并洗之. 『千金』
 - 冬瓜切片摩癩子甚良.

- 癩子瘙癢: 舊屋梁上刮赤白墜末敷之. 『普濟方』
- 癩毒已破: 益母草搗敷甚妙. 『斗門方』
- 癩子腫毒: 鼠粘子葉貼之. 『千金』, 下同.
- 些小癩癩, 發熱: 粉草節曬乾爲末, 熱酒服一二錢, 連進數服, 痛熱皆止. 『精要』
- 癩疽已潰: 牛膝根略刮去皮, 插入倉口中, 留半寸在外, 以嫩橘葉, 地錦草各一握, 擣敷其上. 牛膝能去惡血, 二草溫涼止痛. 隨乾隨換, 有十全之功也. 『經驗方』
- 癩癩惡肉: 地黃三斤, 水一斗, 煮取三升, 去滓煎稠, 塗紙上貼之, 日三易. 『鬼遺方』
- 癩毒腫毒: 鹿角尖磨濃汁塗之, 甚妙. 瀕湖方
- 鬢邊熱癩: 貓頭上毛, 豬頭上毛各一把, 鼠屎一粒, 燒研, 油調敷之. 『壽城方』
- 癩毒: 狗頭骨燒煙, 日熏之. 『聖惠』
- 軟癩頻作: 露蜂房二枚, 燒在性, 以巴豆二十一粒, 煎清油二三沸, 去豆, 用油調敷, 甚效. 『得效方』
- 癩頭軟癩, 及諸熱瘡: 用五倍子七箇研末, 香油四兩, 熬至一半, 布絞去滓搽之, 三四徧即可, 勿以水洗之. 『普濟方』
- 乳癩初發: 黃明水膠, 以濃酢化塗之, 立消. 『簡便方』
- 小兒頭上生軟癩, 三四年不愈者: 老松香二錢, 蓖麻子肉四十九粒, 二味共研末, 用茶油少許, 同熬成膏, 只作一箇, 用布攤開貼癩子上, 要過七日, 揭開即愈.
- 黑末子: 治癩毒. 用羊角連肉骨燒存性爲末, 酒調三錢, 分上下服之, 瘡可散. 按此方未嘗用服, 蓋秘方也. 常治面上, 或身卒得赤斑, 或癢或癩毒, 不治殺仁. 以羸羊角燒存性, 研令極細末, 以雞子清調塗之, 甚效. 『本草』亦云然.
- 軟癩頻發: 翠玉膏. 通明瀝青八兩, 銅綠二兩, 麻油三兩, 雄豬膽三箇, 先鎔瀝青, 乃下油膽, 傾入水中扯拔, 器盛, 每用 緋絹攤貼, 不須再換.
- 頭上軟癩: 鰕鱗剝皮貼之, 收毒即愈. 『活幼全書』
- 預免瘡癩: 凡小兒每年六月六日, 照年數吞皂莢子, 可免瘡癩之患. 大人亦可吞七枚或二十一枚. 『扶壽方』
- 癩癩已潰: 芫花根皮搓作 撚插入, 則不生合, 令

膿易竭也. 『集簡方』

- 癩子初起: 葛蔓燒灰, 水調敷之, 即消. 『千金』

III. 考察

肺風粉刺는 우리가 흔히 여드름이라 부르는 질환과 증상과 형태의 일부가 일치하며 西洋 醫學적으로 尋常性 여드름(Acne vulgaris)과 유사한 점이 많다. 성숙기에 이르러 皮脂腺의 활동이 강화되면서 皮脂가 많이 분비되고 表皮의 角化이상으로 毛囊口가 막히게 되면 皮脂가 배출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黑頭라 불리는 面皰가 발생한다. 또한 면포 주위의 경미한 炎症반응으로 인한 丘疹, 2차 감염에 의한 膿疱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囊腫 및 結節을 일으켜 치유된 후 癍痕을 남기기도 하는 질환이다.

한의학에서는 『內經』이래로 현대에 이르기까지 肺風粉刺에 대한 病因, 治法, 形態 등에 대한言及이 있었다. 여러 文獻에 대한 考察 結果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素問·生氣通天論』에서는 “汗出見濕 乃生痤癩 高粱之變, 足生大丁, 受如持虛 勞汗當風, 寒薄爲皴, 鬱乃痊”라하고, 『氣交變大論』에서는 “歲木不及, 燥乃大行, 病寒熱瘡瘍, 癩疹癰痊”라 하여 皴, 痊, 癩, 瘡癩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표현되었으며, 病因이 風寒濕과 기름진 음식, 기후의 異變이라고 언급하였다.

隋·巢元方の 『諸病源候論』에서는 面皰侯 面皰者謂面上有風熱氣生瘡, 頭如米大, 白色者是라 하여 면포가 面上에 風熱이 있어 발생하며, 쌀알크기에 색이 白色이라고 하여 그 형태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晉·葛洪의 『肘後秘急方』에서는 年少氣充 面生癩瘡이라 하여 잘 발생하는 연령을 나이 어려기가 壯만할 때라고 하여 청소년기에 잘 발생한다고 하였다.

唐·孫思邈의 『千金方』에서는 熱瘡癩子 凡熱瘡起, 便生白膿, 卽今俗名膿瘡是也라 하여 熱이 病因이며, 백색농이 생긴다 하였다.

宋代의 『聖濟總錄』에서는 粉刺의 병인이 허한 損을 타 사기가 들어와서 생긴다 하여 처음으로 인

체의 허약을 병인으로 언급하였다.

金·李東垣의 『蘭室秘藏·自汗門』에서는 面有黧黯或生瘡 或生瘰癧 及粉刺之類 등에 처음으로 洗面藥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며 옥용산과 비슷한 내용의 처방이 있다.

金·張子和의 『儒門事親』에서는 발생부위가 背項이며, 나왔다가 다시 발생한다는 病程과 病因을 太陽經에 血이 有餘해서 생기므로 治法으로 下法과 委中穴 放血을 제시하여 처음으로 鍼法을 제시하였다.

元·王好古의 『醫壘元戎』에서는 선대의 여러 醫論을 모아 정리하였으며 그중에는 面生赤癩 鼻頭赤面紫黑者이라 하여 病因을 風熱로 보았으며, 처방으로는 旋覆花湯, 葛根升麻湯加 黃芩枳殼을 제시한 것과, 仲景이 三物旋覆花湯을 胡洽은 痰飲으로 보아 旋覆花丸을 사용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日華子는 山茱萸가 酒醱와 齧와 瘰를 치료하며, 瘰는 색이 붉고 안에 膿血이 있다고 하였다.

明·龔廷賢의 『萬病回春』에서는 面生瘡의 病因을 上焦火로 보아 處方을 清上防風湯, 升麻白芷湯으로 하였고, 面生風刺의 病因을 肺火로 보아 處方을 清肺散, 升麻黃連湯으로 하였으며, 面病勞汗當風 面生粉刺 則虛損成라 하여 腎水不足 陰虛火動을 病因으로, 그에 대한 處方으로는 六味地黃湯을 舉論하였다.

明代의 醫學綱目에서는 內經의 病因을 들어 그 病理를 밝히고, 處方을 제시하였으며, 그 형태를 크기는 酸棗仁이나 콩과 같고, 색은 적색이고, 안에는 膿血이 있다고 하였다.

明·李梴의 『醫學入門』에서는 비좌라 하여 여름철에 땀 흘린 후 발생하여 열과 습을 病因으로 보았고, 黃連阿膠丸으로 清火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靑蒿煎湯으로 씻으며, 모양은 좁쌀 흩어 놓은 것과 같다고 하였다.

明·王肯堂의 『證治準繩·面遊風』에서는 病因을 內熱과 辛辣厚味, 藥物의 誤用으로 보았고, 陽明經에 속한다 하였다. 處方으로는 清熱燥濕하는 黃連消毒散去人參加薄荷, 梔子及活命飲加桔梗·升麻·紫金丹·烏金散과 外用으로는 祛風潤肌之劑를 사용하였다.

明·陳實功의 『外科正宗』에서는 風熱로 毛癬가 閉

塞되어 생기며, 처방으로는 消風散, 洗用으로는 苦參湯을 제시하였고, 肺風·粉刺·酒齧鼻가 같은 것이며 粉刺는 肺에 속하고, 齧鼻는 脾에 속하며, 모두 血熱鬱滯가 病因이며, 外用으로는 眞君妙貼散加白附子를 붙이고, 내복으로는 枇杷葉丸·黃芩清肺飲을 사용하였다.

明·徐春甫의 『古今醫統』에서는 風刺·粉刺·黧黯·瘰癧·酒齧·肺風諸瘡 등의 面病이 胃에 속하며, 痰과 脾肺風濕과 熱이 相搏하여 발생하며, 升麻白芷湯과 升麻胃風湯加減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明·申斗垣의 『外科啓玄』에서는 婦女的 얼굴에 생하는 것을 粉花瘡이라고 하였으며 병인으로는 폐가 風熱을 받거나, 면에 풍을 받거나, 濕熱이라고 보았으며, 面熱에 寒이 相搏하여 血이 凝結하여 생긴다고 하였다.

淸·陳士鐸의 『石室秘錄』과 『洞天奧旨』(일명 外科秘錄)에서는 粉刺의 病因을 肺熱과 氣血不和로 보았고, 治法으로는 降火를 들었다.

淸·吳謙의 『醫宗金鑑』 外科心法要訣 肺風粉刺에서는 病因을 肺經血熱, 發生部位를 面鼻, 모양을 기장부스러기, 색은 적색, 터트리면 백분즙이 나온다고 하였고, 처방으로는 내복에 枇杷清肺飲 外用으로는 顛倒散을 사용하였다.

淸代: 喻昌이撰한 醫案의 著作인 寓意草에서는 風刺의 原因을 內외인으로 분류하고, 內인으로는 膏粱厚味, 性情을 들었고, 外인으로는 風寒熱濕을 들었으며, 內외인이 아닐 경우 선천적인 요인과 과거 어린 시절 胎毒의 不完全한 治療로 체내에 잠복해 있는 小毒을 病因으로 삼아 病因에 대한 진보된 認識을 보였다.

『內經』이래로 現代에 이르기까지 病因은 風熱이 寒濕과 相搏하여 發生한다는 것에서 발전하여 脾胃의 風熱濕으로 또한 膏粱厚味와 辛辣한 음식의 과식과 風熱로 인한 陰虛內燥의 발생과 性情을 잘못 다스려 발생하며, 또한 현대에 이르러서는 脾胃濕痰과 衝任不調로 인한 것으로 보았으며, 治法으로는 肺經의 風熱, 血熱을 치하는 清上, 清肺, 瀉胃熱의 치법과 去濕痰, 養陰, 調理衝任이 있으며, 또한 外治法으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IV. 結 論

오늘날의 여드름과 증상이나 형태가 일부 일치하는 肺風粉刺에 대하여古今의 여러 文獻들을 中心으로 研究한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素問·生氣通天論』과 「氣交變大論」에 주로 虛勞와 熱에 의한 것이라고 처음으로 언급되었고, 『千金方』, 『證治要訣』, 『證治準繩』, 『外科正宗』, 『諸病源侯論』, 『洞天奧旨』 등에서는 주로 熱과 風熱, 風熱과 濕의 相搏 등이 肺風粉刺의 主原因이라고 하였다.
2. 金代의 李東垣은 처음으로 洗面藥을 사용하게 하였으며, 張子和는 血有餘로 인한 것이므로 下法과 委中穴放血을 실시하는 鍼法을 提示하였다.
3. 『證治準繩』에서는 肺風粉刺의 病因을 飲食이나, 金石劑 등의 太過로 積熱이 陽明經에 쌓여 생긴다고 하였다. 『古今醫統』을 비롯한 여러 文獻에서는 얼굴위에 생긴 병은 모두 陽明胃經에 속한다고 하였고, 脾肺와도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4. 『外科正宗』에서는 風熱이 毛竅를 閉塞해서 발생한다는 病理를 밝혔으며 肺風, 粉刺, 酒瘡鼻가 동일하나 發生原因이 되는 臟腑가 脾, 肺로 다르다고 하였다. 陳士鐸의 『洞天奧旨』에서는 肺熱과 風으로 氣血不和가 되어서 발생하며 青春男女가 꺼려하는 疾患임을 나타내고 있다.
5. 『聖濟總錄』은 精氣가 허한 틈을 타서 邪氣가 侵入하여 발생한다고 하였으며, 『醫學入門』에서는 腎陰不足으로 發生한다고 하였다.
6. 『萬病回春』에서는 上焦火, 肺熱, 陽明經鬱熱을 그 病因으로 밝혔으며, 治法으로는 清上降火를 내세웠다. 대부분의 文獻에서 清上, 清火,

消風發散을 治法으로 提示하였다.

이상의 研究를 통하여 여드름이라는 疾病도 精確한 辨證論治를 하면 더욱 效果的으로 治療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參 考 文 獻

1. 許俊, 對譯『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1999.
2. 李梴, 新校編註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1994.
3. 龔廷賢, 增補萬病回春, 서울 杏林書院, 1972.
4. 王肯堂, 證治準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5. 裴秉哲 譯, 金釋 黃帝內經 素問, 서울, 成輔社, 1978.
6. 劉忠恕 主編, 現代中醫皮膚病學, 天津, 天津科技翻譯出版公司, 1997.
7. 李東垣, 國譯 內外傷辨惑論 蘭室秘藏, 서울, 大星文化社, 1995.
8. 王好古, 醫壘元戎, 서울, 醫聖堂, 1999.
9. 韓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韓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10. 孫思邈, 千錦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6.
11.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4.
12. 吳謙, 醫宗金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13. 李元文 張豐川, 皮膚病,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2.
14. 陳達燦 禰國維, 皮膚性病科專病 中醫臨床診治,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5.
15. 陳冰, 譚基明, 奇方妙法,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6
16. 陳夢雷外, 欽定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 서울, 大星文化社, 1980.
17. 巢元方, 諸病源侯論,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70.
18. 劉忠恕 現代中醫皮膚病學, 河北省霸州, 天津科技翻譯出版公司, 1998.